

데스크시각

박진현



요즘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이하 부천필) 단원들은 하루 하루가 즐겁다. 근 20년 동안 질질 끌어진 전용 음악당 건립이 마침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천시시회는 오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원미구 중앙공원 부지에 1400억 원을 들여 2000석 규모의 전용음악당 건립계획안을 승인했다.

부천필이 전용음악당을 ‘선물’ 받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인구 80만 명의 지방도시에서 음악당 건립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다는 건 사실 ‘사치’나 다름없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을 끌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사모’ 거느린 부천시향

하지만 부천필이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과 함께 ‘빅3’로 입지를 다지면서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용 음악당 하나 없는 열악한 여건에도 전국 곳곳에 ‘부사모’(부천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퍼뜨린 부천필이 시민들은 자랑스러웠다. 오케스트라의 명성에 걸맞는 음악당을 건립하자는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부천필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빼어난 연주실력이다. 지난 1989년부터 부천필을 이끌어 온 임현정 상임지

휘자는 상시오디션을 도입해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당시 단원들의 월급이 20만~30만 원에 불과했지만 “연주로 정면 승부하자”며 예술가의 자존심을 건드려 내부 경쟁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991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최초로 말러교향곡 전곡을 연주해 국내 음악계의 뉴스메이커로 등장했다. 그간 오케스트라

운영에 인색했던 부천시는 매년 60억 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천필의 오디션은 말이 오디션이지 ‘지옥훈련’이다. 지난 2005년부터 단원들이 수석지휘자를 평가하는 대신 단원들은 매년 블라인드 테스트로 오디션을 치르고 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실력 있는 단원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단원은 떠나야 한다. 또한 설명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강도높은 합숙훈련과 파드연습이 기다린다.

어디 부천필 뿐인가. 근대 대부분의 오케스트라나 국·공립 예술단은 엄격한 오디션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걸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 국립극장은 올 가

을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공연할 산하 8개 예술단체 대표작 79편을 미리 예고하는 ‘레퍼토리 시즌’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렇다할 ‘히트작’이 적은 데다 유료관객이 많지 않다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부산시 역시 시립예술단 274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상시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적 긴장감을 통한 내부경쟁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취지다.

하지만 광주시립예술단은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 작년 말 광주시향이 85명 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평정은 ‘부작격’ 반응을 받은 15명이 ‘실사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소송까지 가는 파행을 겪은 후 최근 ‘없었던 일’로 일단락

나는 시립예술단원이다

됐다. ‘강도높은 개혁’을 내건 평가시스템이 옹두사미가 된 셈이다. 실제로 시립예술단의 산하 7개 예술단체들은 매년 한차례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지만 퇴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열악한 여건을 핑계로 현실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문제다. 물론 광주시와 운영기관인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부천필과 같은 ‘분발’을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시향은 매년 4월 전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참가하는 ‘교향악 축제’와는 답을 쌓은지 오래됐다. 이 때문에 교향악축제를 찾은 음악 애호가들은 광주엔 시향이 없는 줄 안다.

광주시립무용단은 유명발레단의 ‘광주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단원 수와 처우 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서울의 내로라하는 발레단이 광주를 찾으면 “(수준높은 공연을 보고)눈이 높아진 시민들이 시립무용단 공연에 만족하겠느냐”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시립무용단은 지난 7월 국립발레단의 광주나들이를 앞두고 수개월전부터 주최 측에 공연 철회를 강하게 어필해 반축을 샀다. ‘자극’과 변화 대신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상시평가로 내부경쟁 높여야

광주시립예술단은 매년 약 110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다.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예술단 등 연주 273회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시립예술단의 색깔을 보여주는 간판 레퍼토리는 드물다. 게다가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매년 객석채우기에 급급하다. 척박한 환경속에서 수년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광장음악회, 김원중 달거리공연, 무등산 풍경소리와는 대조적이다.

시립예술단은 한 도시의 문화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베를린과 뉴욕, 런던이 글로벌 문화도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필 하모니, 런던로열발레단과 같은 세계적인 예술단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허브가 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여건타령이나 늘어놓으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천필의 성공이 값진 이유는 ‘예술 정신’으로 빚어낸 열매이기 때문이다.

〈편집국 부국경 겸 문화선임기자〉



송민석

요즘 최신행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통신사 광고 문자에 귀가 솔깃하다.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경우 속도가 느려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아직도 구형 핸드폰을 고집하는 아내의 눈치가 보여 섣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3000만대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건 분명하다. 슬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머리말에 전화를 걸고 잡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마트폰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손안의 PC 스마트폰 세상

된지 오래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빠른 확산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새로운 수단이자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필자도 언제부턴가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사회적 이슈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궁금할 때 트위터부터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바쁜 일과 중에도 매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3일만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하다는 블로그도 관리하다 보면 자정을 넘기는 것은 예사일이 되었다.

손안의 PC 스마트폰을 통해 못하는 게 없다. 어디서든 휴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를 능가하고, 기능의 다양성 면에서 기존 휴대폰을 훌쩍 넘어선다.

이만한 생활도구, 장난감이 없을 것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지하철만 타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낮토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힐 때도 핸드폰부터 들여다보면서 어색함을 벗어나려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블로그와 연동시켜 트위터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도 글을 보내곤 한다.

특히 학생들은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청소년의 60% 이상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과 초조감을 느낀다고 한다. 학교나 학원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무음상태로 하여 문자로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도 많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가서도 대화보다는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옆자리에 있는데도 직접 말하기보다 폰으로 대화하는 관행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생겨난 풍경이다.

SNS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지난 1월 미국 언론들이 색다른 체험 내용을 발표했다.

90일 동안 핸드폰과 이메일은 물론 문자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킹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강순구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해맑은 웃음과 사랑스런 말들이 따스한 눈길과 함께 오고 가는 정겨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꿈꾸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정경은 기초질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인사 잘하기, 수업태도 바르게 하기, 학교규정 잘 지키기’ 등 아주 사소한 것들이 실천을 통해 습관으로 체화되었을 때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학교생활은 활기를 띠게 되고 서로 돕고 배려할 줄 아는 배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질서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내 자유가 소중함 만큼 상대방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도로에서 수신호를 통해 모든 차량을 통제하는 교통 경찰관은 전횡의 상징이 아니라 운전자가 불편을 겪지 않고 원하는 방향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합리적인 질서의 상징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엄연히 질서가 존재해야 함은 자칫히 당연한 일이다. 모두가 자유를 앞세워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나서면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책임이라는 굴레를 씌워 놓았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겐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 자유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줄만 알았지 책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다. 남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장난이라고 한다. 죄의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 잘 하려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요구가 쉽게 수용되었다. 학력지상주의가 만들어낸 불평사나운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또 한 중학생이 급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

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 법국민적으로 학교폭력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어도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이지 않고 있다.

물론 심각한 학교폭력이 난무해도 이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악화가 없었지만 요즈음은 가해자 등고 정치 및 강제 전학, 부모 소환 등 다소 강경해진 법령으로 인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기도 하다. 예전에는 고의적인 학교 기물 파손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던 것과 비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시 교육청 일관성 없는 정책 언제까지

광주시교육청이 당초 방침을 철회하고 고교 3학년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 3학생의 경우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 기재를 인정하겠지만 4월 이후 사건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교육청은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반해 이를 거부하면서도 고 3학생에 한해서는 다 가운 임시전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 교육청이 결국 이에 굴복한 것이다. 교육단체의 집단 행동에 정책을 바꾸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겨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고교 진학

생들이 선지원 2곳을 하되, 후지원은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고교 배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속출하자 3개월 만에 백지화시켰다. 자립형 사립고인 보문고 사태에서도 일반고 전환 신청을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시 교육청이 중대 교육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면 결국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만 주게 된다. 학교폭력 기재만 하더라도 교과부가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다.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만 원칙이 없는 교육정책은 불신과 반발 등 부작용을 야기시킬 뿐이다. 시 교육청은 특정 교육사회단체만이 아닌 학교·교사·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 국민 신뢰하겠나

서민 체감물가와 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표 간 괴리가 너무 커 문제가 되고 있다. 휘발유 값을 비롯해 라면, 채소 등 체감물가가 상승은 최악의 상황임에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7%, 전남은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999년 12월(0.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남도 1999년 8월(0.9%) 이후 14년 만에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로만 보면 물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1%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체감물가는 전혀 판판이다. 1년 새 전기료, 가스요금, 교통비 등 공공요금에 대폭 오른데다 최근 식료품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역난방비가 19.4%, 도시가스는 9.8% 뛰었다. 유가도 상승세로 전환해 8 달 2000원선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다.

식료품 폭등세는 더욱 무서운 정도다. 광주의 경우 지난 7월에 비해 시금치 65.6%, 수박 46.7%, 오이 26.2%, 호박 22.4%, 무 20%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지역도 수박 55.6%, 시금치 53.6%, 오이 45.7%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통계는 서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물가당국자 1%대의 물가상승률이라 호도할 게 아니라 예상되는 물가 인상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릴레이 태풍’ 영향으로 당장 추석물가가 소비심사이다. 서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꼼수’ 부리는 물가통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물가안정대책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無等鼓

어느 가을날 미국의 여류시인이자 소설가인 제인 로버츠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신 뒤 책상에 앉아 시를 쓰려는 순간 머리에 무엇인가의 메시지가 수신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잡념의식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세스(Seth)라는 영적인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챘다.

영적 존재인 세스가 ‘텔레파시’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제인 로버츠가 구술하고, 이를 그녀의 남편인 폴이 받아 적어 완성된 것이 바로 유명한 ‘육체는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라는 책이다. 이른바 영적 존재와의 교감이라는 ‘채널링’에 의해 쓰인 것이다.

채널링은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존재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대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무속의 ‘빙의’(憑依) 현상과 다르고, 강제성을 따지 않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채널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접신’(接神)과도 차별된다고 한다.

리처드 버크가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매기의 꿈’ 역시 채널링을 통해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글귀로 유명한 이 소설은 “신(神)의 영역에 도전한 오만의 죄로 가득찬 작품”이라는 성직자들의 거센 비난에도 1970년 출판되자마자 미국 문학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판매 기록을 뛰어넘었다.

전직 비행사였던 리처드 버크가 ‘비행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을 내세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 ‘함께를 넘어서기를 촉구하는’ 이 소설은 지금도 읽는 의의 있는 책이다.

최근 리처드 버크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머리와 어깨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이다. 비행사이자 채널러로서, ‘비행’이라는 소재를 영적인 탐구에 접목해 온 그가 하필 비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니 안타깝고 또 이채롭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언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회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2>		전 산 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